

‘개점휴업’ 1월 임시국회

4야 “선거제 개혁·손혜원 폭포 투기 의혹 등 밝히자” 요구
여 “야, 정쟁 위한 공세…2월 임시국회 10일후 열려 불필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4당의 소집요구로 지난 19일 1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으나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야 4당은 선거제 개혁, ‘김태우·신재민 폭로’, 현 정부 경제 정책 및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 등 현안들이 산적한 데다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폭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민생 법안 논의보다는 손혜원 의원 의혹 등을 놓고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동 소집되는 2월 임시국회까지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

은 만큼 굳이 1월 임시국회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0일 “민생을 다루겠다면 1월 임시국회에 응하겠지만, 정쟁만 하는 국회를 뛰어들 여느냐”며 “야당이 또 근거 없고 타당성도 부족한 이야기만 늘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민주당이 민생·개혁 입법을 주장하면서도 1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1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손혜원 감싸기’를 위해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의도적으로 파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전체 상임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야 4당은 이번 주에도 민

주당이 상임위 개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이 소집을 요구하는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이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목포시 등을 상대로 문화재 지정과 관련 예산 배정 과정 등을 짚어 손 의원의 투기 및 압력 행사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지난 18일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바른미래당도 공조에 나선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손 의원 의혹과 관련, 한국당과 상임위 소집요구를 같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가장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과 문화부를 소관 기관으로 둔 문화위 소집이다. 한국당은 ‘손 의원이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통상 개별 건물별로 이뤄지던 등록 문화재 지정을 한 거리에 통

째로 적용하도록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위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이번 주 초 정식으로 문제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소집요구를 끝내 거부하면 야당끼리라도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은 국토부를 상대로 목포가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된 경우 등을 따지기 위해 국토위를, 목포시를 국회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행안위를 각각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여당과 상임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들의 출석 없이 ‘야당만의 반쪽 회의’에 그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고민도 있다. 여기에 문제위·행안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손 의원 의혹을 따질 상임위 소집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전국 광역시장·도지사

‘제로페이’ 도입 합의

전국 광역시장·도지사들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의 ‘제로페이’ 정책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또 부정부패 배척을 위해 구제적인 반부패·청렴시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1박2일간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총회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들은 임금, 임대료 등 제반비용 상승에 기인한 자영업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의 비용 감소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제로페이를 17개 시도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과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부담의 판매자 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총회에 앞서 민선 7기 시도지사는 국민 권익위원회와 ‘청렴 협약’을 체결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특권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강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해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해 향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해찬 당 대표와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지방분권 차질없이 추진”

민주, 14개 시도지사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해찬 당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2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지방일괄이양법과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당정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정”이라며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으로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지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며 “올해는 3·1 혁명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만큼 그 의미에 맞는 여러 정책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태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지사들이 현장 방정처럼 뛰어달라”고 주문했다.

각 시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민원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부 차원의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의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위원회를 신설해 지원해 달라”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참여와 입장권 판매, 해외 홍보 및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달라”고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남해안의 경우 세계적 관광 여건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접근성을 위해 대통령 공약사업인 남해안 관광도로 개설과 남해안광역경제권 구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남해안철도와 경전선 문제 등 SOC 문제를 올해 안에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정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달아오르는 한국당 당권 경쟁

오세훈·황교안 이변주 영남 방문…현역 줄줄이 출마 선언

자유한국당 새 대표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가 한달 가까이 다가오면서 당권레이스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과 연초에 잇따라 한국당에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번 주엔 나란히 한국당의 전통적 ‘뒷방’인 영남권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당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당권주자로 거론돼 온 현역 의원들도 이번 주 줄줄이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어서 한국당의 당권 경쟁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21일 오전 대구를 방문해 한국당 여성 당원들이 참석하는 ‘여성 정치 아카데미’ 행사에서 당원들에게 입당 인사를 하고, 오후에는 부산시당을 찾아 당직자들과 만남 예정이다. 이어 이번 주에 충청·호남·수도권 등 전국의 시·도당을 방문해 당원들을 만나는 지방 순회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당권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오 전 시장도 21일 영남권 방문을 시작으로, 지방 순회에 나설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방의 각 권역을 방문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산업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세부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 전 시장은 조만간 자신의 저서 ‘미래’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당권 도전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외에도 이번 주에는 현역 의원들이 출마표를 던질 예정이다. 먼저 23일에는 안상수(3선), 김진태(재선)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다. 또, 심재철(5선), 정우택·조경태·주호영(4선) 의원 등도 전대 출마 결심을 굳히고 날짜를 고르고 있다. 신상진·정진석(이상 4선), 김광림·김성태(3선) 의원 등도 전대 출마 예상자로 거론된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대표가 아닌 최고위원 경선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는 30일 개최할 출판기념회에서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며, 김태호 전 경남지사로도 조만간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심상정 “이달내 선거제 합의 어렵다”

5당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 구성 정식 요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심상정 위원장은 20일 “오는 28일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정치협상 테이블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정개혁위 논의만으로는 1월 안 선거제 개혁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1월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5당 원내대표의 지난해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개혁위에서 밀착업은 다 했다”며 “하지만 각 당 의지가 실리지 않아 정개혁위 논의만으로는 합의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정개혁위에서 한 선거제 개혁 관련 논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이고 자유한국당은 부정적이었다”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밝힌 이래 연동형 효과를 최소화한 제도 설계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당은 지금까지 반대나 이견만 표출할 뿐 열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만약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곧 국민들께 다시 촛불을 들고 주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며 “국회가 거부한다면 국민이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4월 15일이 법정 시한인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다음 달 15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달라고 독촉 공문을 보내왔다”며 “정개혁위와 각 당 지도부로 구성된 정치협상 회의가 병행 추진 돼 적어도 2월 이내에 선거제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나방** NAVER 블로그 에서 구독하세요

새로운 방식의 독창적인 백내장 수술

젠티(ZEPTO) 노안·백내장

정확 신속 안전

-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 삽입 위해 수정체 전낭 절개 필요
- 기존엔 칼을 사용해 수기로 하던 전낭절개를 젠티 장비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거
- 미세전류를 이용해 360도 원형의 완벽한 수정체 전낭 절개 가능
- 형상기억합금으로 주변 세포에 열 손상을 최소화하고전낭 절개면 인장 강도 높여 안전
- 수기로 제거시 시간이 걸릴수도 있지만 젠티 사용시 수술 시간 현격히 단축
- 동공이 작거나, 백내장 진행이 심하고, 각막이 혼탁해도 쉽게 수술 가능
- 완벽한 전낭 절개로 더욱 안전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1566-9988 9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북함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북함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